

# 高宗年間(1863-1907) 宮中 書畫收藏의 전개와 변모양상

황 정 연\*

- I. 머리말
- II.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형성배경
- III.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전개양상
- IV.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품의 내역변화와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왕실에서는 戰亂으로 인해 흩어진 왕실 典籍 및 기타 수장품을 채수집하고 정리하고자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고 이 과정을 통해 御眞과 御筆, 御書, 역대 서화가들의 작품, 금석탁본, 서화관련 귀중 서책 등이 집적될 수 있었다. 또한 수장품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한 宮中 書畫收藏處의 건립은 왕실의 서화수장 정책과 서화에호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 안에 수집된 작품들은 국내외 서화계의 동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사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sup>1</sup>

조선시대 궁중 서화 컬렉션은 왕실의 문화정책 및 서화계의 동향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소

며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당대 문화경향을 대표한 것이었다.<sup>2</sup>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高宗年間(1863-1907)은 전통시대 수장체제를 계승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전적의 관리정책과 수장품의 내역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과도기이자 오늘날 현존하는 왕실 서화자료가 본격적으로 수집·정리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궁중 서화수장을 구명하는 일은 宮中 書畫收藏史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최근 역사학과 미술사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고종시대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과 면밀한 평가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본다.<sup>3</sup>

이 글은 고종 연간을 중심으로 일제에 의해 해체되기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궁중 수장의 면모를 살펴보고 수장품의 내역 분석을 통해 조선 말기 서화수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궁중 수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고종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변화된 서화수장의 시기별 전개과정,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궁중 소장 서화작품의 내역에 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곧 지금까지 명확하게 구명되지 못한 조선 말기 왕실 문화정책의 실체와 동시기 국내 미술계의 다양한 실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1 조선시대 宮中 書畫收藏處는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先王·先后的 초상을 보관했던 眞殿이고 둘째는 국왕의 글과 글씨, 그림을 전문적으로 보관한 齋閣, 마지막으로 역대 서화기들의 작품과 서책을 함께 보관한 전각이다. 당시 문헌에는 서화를 보관한 곳을 書畫收藏處라고 지칭한 예가 없으나, 이 글에서는 궁중에서 서화를 보관한 전각들을 일괄 宮中 書畫收藏處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 眞殿과 기타 서화를 보관한 收藏處의 건립현상, 궁중 서화수장의 전개에 대해서는 조선미,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眞殿의 發達-文獻上에 나타난 記錄을 중심으로』, 『考古美術』 145(한국미술사학회, 1980), pp. 10-23; 조인수, 「조선 후반기 어진의 제작과 봉안」, 『다시 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pp. 2-28; 黃晶淵, 『朝鮮時代 書畫收藏 研究』(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7) 참조.

3 지금까지 고종 연간에 관한 연구 경향은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皇帝權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치문화적인 조치, 근대국가체제로의 이행 과정, 그 속에 내재한 시대사적인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관련성 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권행가, 「高宗皇帝의 초상」(홍익대학교대 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김 세은, 「高宗初期(1863~1873) 國家儀禮 시행의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31(조선시대사학회, 2004), pp. 175-218; 박정혜, 「대한제국기 書院제도의 변모와 畫員의 운용」, 『근대미술 연구』 2004(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88-118; 徐珍教,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追崇사업과 황제권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대사연구』 19(한국 근현대사학회, 2001), pp. 77-101; 신명호, 「대한제국기 御眞제작」, 『朝鮮時代史學報』 33(조선시대사학회, 2005), pp. 245-280; 이운상, 「대한제국기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 『震檀學報』 95(진단학회, 2005), pp. 81-112; 이태진, 『고종시대의 계조명』(태학사, 2000); 趙仁秀, 「전통과 권위의 표상: 高宗代의 太祖 御眞과 眞殿」, 『미술사연구』 2(미술사연구회, 2006), pp. 29-56 등.

## II.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형성배경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은 18세기 이래 집적된 왕실 소장품을 토대로 고종의 적극적인 財政 확충으로 인한 서화구입과 정리가 광범위하게 실행되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당시 궁중 서화수장의 토대가 된 일차적인 배경은 肅宗年間(1674-1720)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궁중 서화수장의 전통과 이 과정에서 수집된 서화작품이 전래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실 서화수장의 역사는 開國初부터 시작되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인조반정, 수차례의 궁궐화재로 인해 17세기까지 왕실 소장품은 거의 전해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숙종이 등극하여 眞殿을 포함한 天翰閣이나 御覽閣 같은 御筆奉安處의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英·正祖年間(1724-1800)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憲宗-哲宗年間(1834-1863) 동안 방대한 서화 컬렉션이 형성·유지될 수 있었다.<sup>4</sup>

숙종 연간의 궁중 소장품이 後繼王代로 온전히 전래되었다는 증거는 희박하지만 몇몇 사례로 볼 때 18세기 궁중 수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영조가 왕세제 시절 모은 소장품 목록인 『日閑齋所在冊置簿』에 수록된 약 56점에 달하는 先王의 御筆印本을 비롯하여 御書, 安平大君(1418-1453), 尹斗緒(1668-1715), 李明郁(17세기) 등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작품 중 일부가 숙종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든지,<sup>5</sup> 영조와 정조가 즐겨 감상한 서화작품 역시 숙종의 어람용 서화였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sup>6</sup>

<sup>4</sup>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는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과 미술후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대원사, 2005), pp. 55-110; 同著, 앞의 논문(2007) 참조

<sup>5</sup> 숙종이 어람한 작품과 치부책에 수록된 작품 중 일치하는 사례로 〈白鷹圖簇子〉, 〈貞明公主筆蹟〉, 〈仁穆王后御筆綉質簇子〉, 李明郁의 〈九里山十面埋伏圖〉 등이 있다. 각 작품명에 쓰인 숙종의 어제는 『列聖御製』<sup>7</sup>(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2002) 참조. 日閑齋는 영조가 등극하기 전 머물렀던 潛邸로, 그는 노년에도 이곳을 애용하였다. 동쪽으로는 경복궁이, 서쪽으로는 仁慶宮이 있었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의 소장물품을 기록한 『日閑齋所在冊置簿』는 1726년에 작성된 것이며, 마지막 장에 장남인 孝章世子(1719-1728)에게 소장품을 물려준다는 藏書記가 있다. 현존하는 왕실 서화관련 書目 중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sup>6</sup> 『英祖實錄』卷120, 49年(1763) 1月 壬子(22日)條 등 참조. 영조가 숙종을 이어 재차 감상한 작품들은 宣祖의 〈蘭竹屏〉, 金昌集의 畫像, 작자미상의 〈朱雲折檻圖〉, 金鎭圭가 그린 〈聖功圖〉, 金珪의 畫像, 吳達濟의 〈墨梅障子〉 등이 있다. 이 중 吳達濟(1609-1637)의 〈墨梅障子〉는 18세기 초 후손에게 잠시 돌려주었다가 추후 궁중에 다시 들어와 보관된 작품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정조가 물려받은 작품으로는 〈農作圖屏〉과 〈聖學十圖屏〉, 〈天下地圖簇子〉, 숙종의 어제 현판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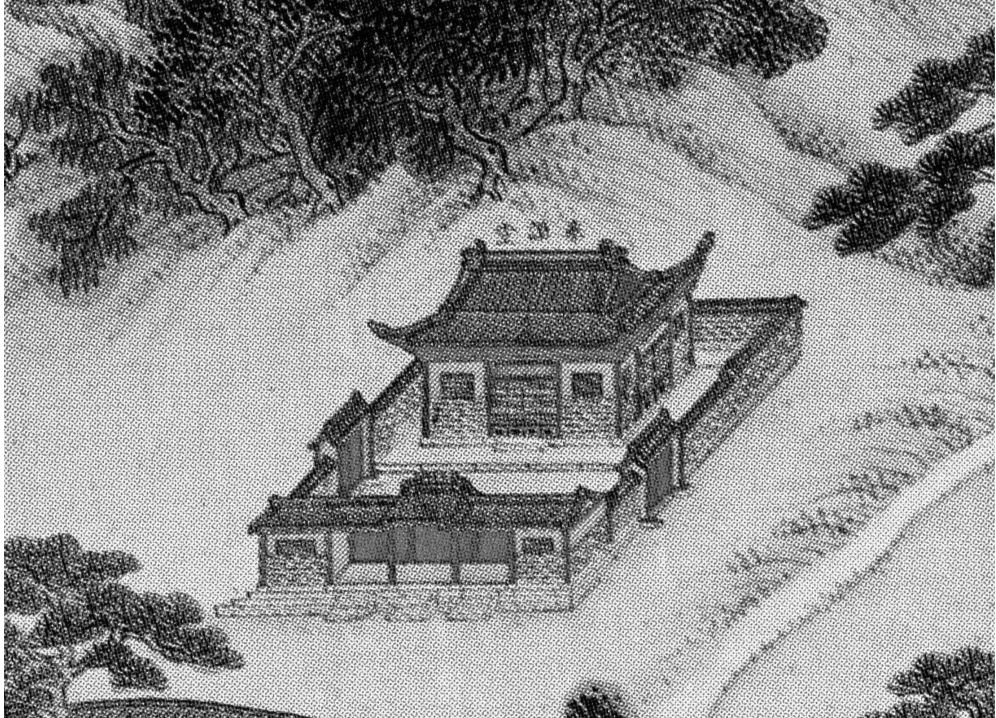
숙종 연간 궁중 소장품에 토대를 두고 발전한 조선 후기 궁중 서화수장은 정조 연간(1776-1800)에 이르러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었으며, 고종 연간 궁중 소장 역시 이 시기 서화수장 체계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측면이 크다. 정조는 1776년 창덕궁에 奎章閣과 그 부속 건물들인 奉諷堂, 宙舍樓, 閱古觀, 皆有窩, 摛文院 건립을 명하여 국내외 서책과 어제어필, 어진, 기타 서화가 집중적으로 보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sup>7</sup>

창덕궁 규장각과 주변 전각들을 중심으로 한 서화수장의 전통은 19세기로 계승되어 조선 말기까지 궁중 내 주된 소장품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작성된 왕실 목록서 뿐 아니라 19-20세기 초에 작성된 『奎章閣藏書目』, 『閱古觀書目』, 『皆有窩北坊書目』처럼 현존하는 書目 대부분이 규장각 주변에 있던 전각을 대상으로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서책, 淸 황실의 內賜本, 역대 유명 서화가들의 작품, 畫譜 등이 다량 유입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朝鮮 列聖의 墨蹟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된 奉諷堂은 본래 17세기에 국왕의 글을 보관한 天翰閣과 御製閣에서 출발하여 1776년 영조의 어필을 봉안하기 위해 정식으로 건립되었고 1911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기까지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簞閣으로 이용되었다(도1, 2).<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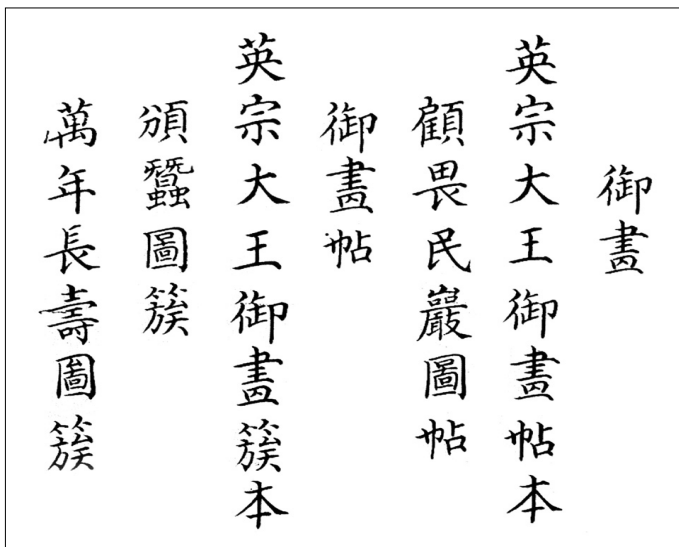
18세기 창덕궁 후원의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궁중 서화수장 제도는 19세기 들어와서도 여전히 중요한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아울러 소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곳에 分藏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수장처가 국왕이나 왕세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한 寢殿이나 東宮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전반 궁중 서화수장품은 서화에 관심이 많았던 純祖(재위 1800-1834)와 孝明世子(1809-1830), 憲宗(재위 1834-1849)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 창덕궁의 春坊, 觀物軒, 演慶堂, 樂善齋, 古藻堂 등지에 상당수 비치되었다. 특히 현종이 역대 명서화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았던 承華樓는 고종 재위 초년기까지 수장처로 이용되면서 약 884점의 작품이 수장됨에 따라 19세기 말 궁중 컬렉션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sup>9</sup> 이처럼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품은 18세기 이후 전래된 작품을 근간으로 하여 주로 19세기 순조-현종 연간

<sup>7</sup> 규장각은 기본적으로 宋의 전각제도를 바탕으로 英祖의 필적을 간직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숙종대 열성어제·어필을 봉안할 전각을 세우고자한 의도를 계승한 성격이 강하였다. 『正祖實錄』 卷2, 卽位年(1776) 9月 癸巳(25日)條: 『奎章閣志』 卷1, 「建置」.

<sup>8</sup> 봉모당 건립시 수장되었던 御筆御書의 내역은 『奉諷堂奉安御書總目』(규장각 소장)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는 왕실족보나 열성어필을 제외하고 200여 점의 영조 어필·어화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금은 한 점도 알려지지 않은 영조의 그림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1856년에는 이곳에 오랫동안 어제 어필을 다량으로 보관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게 되어 창덕궁 摛文院 大西齋에 처소를 마련하여 일부자료를 이관하였다. 봉모당의 역사는 千惠鳳, 『奉諷堂考』, 『國會圖書館報』 10卷 2號(1973), pp. 5-21 참조.



도1 〈東闕圖〉에 그려진 奉謨堂의 모습, 19세기 초, 고려대박물관 소장



도2 『奉謨堂奉安御書總目』에 기재된 英祖御書, 18세기 후반, 규장각 소장

에 집적된 작품과 이후 公·私的으로 유입된 작품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 Ⅲ.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전개양상

이 장에서는 앞 시기에 전래된 소장품과 재정확충을 바탕으로 형성된 고종 연간 궁중 수장의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 서화수장의 흐름은 고종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인식의 변화라는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전개되었으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흥선대원군의 섭정하에 왕실자료의 관리가 이루어졌던 재위 초년기, 고종이 직접 親政을 시작한 후 경복궁으로 수장처의 중심이 이동된 재위 중기, 끝으로 대한제국 성립 후 궁중 수장이 황실체제로 전환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고종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선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궁중 수장의 체제라든지 고종이 서화수장을 통해 지향했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시기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이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재위 초기(1863-1873)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興宣大院君 李昰應(1820-1898)이 집권한 고종 재위 초기 동안 궁중수장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흥선대원군의 왕실통합 정책으로 인한 궁실전각의 폐쇄와 자료의 이동이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한 이후로도 섭정을 계속한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官制를 정비하였고, 경복궁 중건공사 틈틈이 이관시킬 자료에 대한 조사와 목록작성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대원군 집권시에는 새로운 서화작품을 궁중으로 활발하게 유입시켰기보다는 전승된 많은 왕실자료를 파악하고 보관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당시까지 5대 궁궐 중 서화가 가장 많이 보관되었던 東闕의 창덕궁과 창경궁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당시 동궐에는 약 22곳에 달하는 곳에 서화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便殿을 제외하고

<sup>9</sup> 승화루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남권희,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 3號(慶北大社會科學研究所, 1987), pp. 63-86; 유흥준, 「현종의 문예취미와 서화컬렉션」, 『조선왕실의 日章』(국립고궁박물관, 2006), pp. 202-219; 황정연, 「19세기 궁중 서화수장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 70・71 합집(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131-1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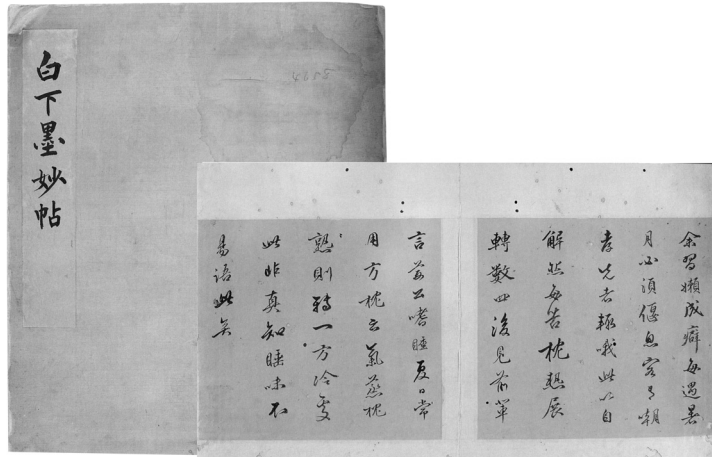
크게 윗내각사, 동궁, 후원영역에 밀집되어 있었다.<sup>10</sup> 당시에는 承華樓를 비롯해 大畜觀, 弘文館, 演慶堂 등에 많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규장각을 비롯해 그 소속전각인 書香閣, 閱古觀, 皆有窩, 奉謨堂, 西庫, 摛文院은 창덕궁 소장 자료의 과반수 이상을 보관했을 만큼 비중이 컸던 곳이다. 이곳에 분산되어 있던 자료는 대원군의 명으로 18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일부는 경복궁으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된다.

고종 재위 초반기 규장각 주변 전각에 소장되었던 서책과 서화규모를 알려주는 비교적 이른 자료는 고종 5년인 1868년경에 작성된 서목이다.<sup>11</sup> 『奎章閣書目』이라는 표제하에 부속 전각인 열고관, 서고, 이문원 소장 자료를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는 약 1,000점 이상의 서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본 서목 중 「摛文院書目」은 경복궁으로 이전되기 전 보관되었던 御製御筆 약 6,050 점을 비롯하여 尹淳(1680-1741)의 필첩인 《白下妙墨帖》, 18세기 관료들의 초상화인 《緝紳畫像帖》 등 오늘날 확인되는 조선 후기 작품들이 여러 점 수록되어 있어 규모 뿐 아니라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도3, 4).

고종 재위 초기 흥선대원군의 창덕궁 자료조사는 경복궁 중건을 앞두고 시행된 왕실통합 정책 중 일환이었으며, 이는 고종 재위 기간 동안 빈번하게 일어난 왕실서화의 이동을 알리는 시초였다. 특히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은 자료는 奉謨堂에 보관되었던 역대 국왕의 그림과 글씨였다. 봉모당 수장품은 대원군 명에 의해 1868년 경복궁 建春門 밖에 중건된 종친부로 일괄 이동됨에 따라 소속처가 규장각에서 종친부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이후 어필간행이 본격화되면서 어필인본의 수량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어필을 여러 전각에 분산시켜 보관함으로써 어필 봉안처의 수가 증대되는데, 고종 연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궁중 도서관에 어필이 소장되었을 정도로 궁중 수장에 있어 왕의 필적은 대단히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필자료가 앞 시기까지 선왕에 대한 숭모정신에 입각하여 보관되었다면 대원군 집권 시에는 격하된 종친계파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궁궐 밖 宗親府로 이동되었다가 경복궁 중건 후에는 고종에 의해 다시 궁중으로 환원되었다. 御筆은

<sup>10</sup> 고종 재위 초기 창덕궁에 위치했던 서화수장처는 18세기부터 건립되어 增補修를 거쳐 이용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황정연, 「朝鮮時代 宮中 書畫收藏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32집(서지학회, 2005), pp. 301-336 참조

<sup>11</sup> 『奎章閣書目』 총 3책(규장각 소장본, 奎 11670). 이 서목은 규장각 부속 전각인 閱古觀, 西庫, 摛文院, 경복궁의 隆文樓·隆武樓에서 옮겨온 자료를 기록한 것이다. 서책과 서화를 포함한 총 典籍의 규모는 40,263건 이상이 넘는다. 여기에 수록된 서화작품은 창덕궁의 봉모당과 춘방, 경복궁에 신설된 內閣으로 잠시 이동되었다가 고종 말년에 건립된 帝室圖書館으로 흡수되었다.



도3 尹淳, 《白下墨妙帖》, 조선 후기, 紙本墨書, 27.2 × 22cm, 현 규장각소장 \*舊 창덕궁소장



도4 작가미상, 《神書畫像帖》부분, 19세기 초, 채색 필사본, 44.6 × 32.2cm, 현 규장각소장 \*舊 창덕궁 소장

국왕의 필적이라는 자료의 상징성과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급격한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실되는 수모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2. 재위 중기(1873-1896)

1873년 10월 흥선대원군이 崔益鉉(1833-1906)의 탄핵상소를 계기로 하야하자 고종은 다음 달부터 국왕으로서 본격적인 집무를 시작하였다. 역사상 “親政期(1873.11-1896)”라고 불리는 이 시기 동안 그는 왕권강화와 대외정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法宮으로서 경복궁의 위상제고와 문호개방을 통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sup>12</sup> 국정운영에 있어 고종의 이러한 방침은 왕실 고유 전례의 자료가 압도적이었던 이전의 궁중 서화수장의 흐름을 변화시켰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親政을 하게 되면서 고종은 왕실자료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대원군에 의해 종친부로 이동되었던 舊 봉모당 자료를 비롯하여 다른 궁에 흩어진 자료를 경복궁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sup>13</sup> 1870·80년대 창덕궁에서 경복궁 內閣(摺文院)으로 이관된 자료는 『內閣藏書彙編』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다.<sup>14</sup> 그러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자료를 경복궁에 모두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옮겼다. 이때 작성된 서목이 현재 “內下書目”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는 목록이며, 곧 국왕이 하사하여 이관을 명령한 서책과 서화작품을 별도로 수록한 수장목록이라고 하겠다.<sup>15</sup> 따라서 이전에는 궁중 수장이 창덕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親政期부터는 경복궁으로 중심공간이 이동되면서 자연히 옮겨질 자료를 보관할 수장처의 설치가 수반되었다. 당시에는 궁실 전각의 운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수장체제가 유지되면서 여러 곳에 많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고종 연간 서화를 보관했던 궁실 전각의 대략적인 분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궁중 서화수장처는 18세기에 건립되어 고종 재위 당시까지 이용된 전각이 대부

<sup>12</sup> 고종의 親政 직전 정치관에 대한 분석으로는 안외순, 「高宗의 初期(1864-1873) 對外認識 變化와 親政」, 『韓國政治學會報』 제30집(1996, 8), pp. 247-265 참조.

<sup>13</sup> 고종 재위 중기 경복궁으로 옮겨진 舊 봉모당 자료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宮內府 소속이 된 규장각(1895년 奎章院으로 개칭)으로 환원하고자 일부가 다시 창덕궁으로 이동되었다. 사실 당시 경복궁에는 규장각의 봉모당처럼 先王의 어제 어필을 집중적으로 보관한 전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19세기 후반 어제 어필의 규장각으로의 환원은 봉모당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sup>14</sup> 장서각 소장본 이 서목에는 列聖의 御製御筆, 陵誌文 등 왕실 관계 자료가 대종을 이룬다. 고종의 휘하에서 관작을 지낸 李裕元(1814-1888)에 의하면 內閣의 상층에는 經部 112종, 史部 166종, 子部 204종, 集部 324종의 서책이 있었고 하층에는 어제 어필 120질, 瑞牒·瑞譜 76질, 御定諸書 138질, 經部 103종, 史部 286종, 子部 156종, 集部 547종을 보관했다고 한다(李裕元, 『摺文院書目』, 『林下筆記』第30卷, 春明逸史).

<sup>15</sup> 현존하는 內下書目類는 『內下庫書目』, 『內下冊子目錄』 등 5건 정도가 파악되었다.

표 1 高宗年間(1863-1907) 書畫가 보관된 宮室 殿閣

宮名	殿閣名	最初 建立時期	위 치	기 능	典據 및 기타
一. 景福宮	坤寧閣	高宗年間	乾清宮 서쪽	中國圖書, 朝鮮書畫	· 乾清宮의 부속건물
	內閣	高宗年間	궐내각사	창덕궁 규장각, 봉모당에서 이관된 자료보관	· 摛文院을 일컬음
	隆文樓	1395 (太祖 4)	大造殿 東行閣 內	왕실간행 서책, 서화 보관	· 太祖年間に 隆武樓와 함께 설립되었으나 燒失 후 1868 년 景福宮 重建時에 再建
	隆武樓	1395 (太祖 4)	大造殿 西行閣 內	同上	· 書目 현존
	集玉齋	1873 (高宗 10)	八隅亭의 서쪽	列聖御眞·御筆·印譜類 보관	· 고종 연간 宮中 圖書館
	緝敬堂	高宗年間	交泰殿 뒤쪽	中國圖書·書譜·朝鮮 書畫類	· 고종의 講學 공간
	長安堂	高宗年間	근령합의 서쪽	왕실서책, 어필	· 고종의 私邸
	春安堂	高宗年間	隆文堂의 서쪽	어필, 필첩, 서책 보관	· 神武門 근처 용문당의 부속건각
	春坊冊庫	高宗年間	別庫職廳 동행각의 남쪽	서책 및 서화 보관	· 春坊은 이미 소실되고 책고만 유존한 상태
二. 昌德宮 昌慶宮	皆有窩	1776 (正祖 元年)	芙蓉亭의 남쪽	中國書籍, 어필 보관	· 고종 연간에는 주로 조선서적 보관
	敬奉閣	1769 (英祖 45)	大報壇의 서쪽	明 황제의 御製·御筆 보관	· 欽奉閣이라고 개칭했다가 환원 · 1774년 경봉각 곁에 奉安閣 을 설치하고 明 勅書 보관
	古藻堂	憲宗年間 (1847년 경)	樂善齋의 앞면 부속건물	중국·조선의 서화작품 보관	· 許鍊의 『小癡實錄』, 憲宗의 수장품이 기초
	觀物軒	正祖年間	誠正閣 북쪽	서책, 서화보관	· 1890년대 전반 짐옥재로 수장품 이관
	羣玉齋	高宗年間	春坊의 서쪽	藏書	· 冊庫가 별도로 있었음
	奎章閣	1776	大造殿의 북쪽	藏書·御製御筆·御眞·搨本 보관	· 1895년 奎章院으로 개칭, 1897년 복원
	樂善齋	1847 (憲宗 13)	내의원 동쪽	諺文小說類·書畫	· 憲宗이 애호하던 서화보관
	大畜觀	英祖年間	重熙堂의 남쪽	中國 및 朝鮮書籍 보관	· 영조 말-정조초 書目 작성
	東二樓	1785 (正祖 9)	大酉齋의 동쪽	藏書·御筆·御書	· 대원군 시절 규장각 자료 이동, 書目 현존
	譜閣哲	宗代以後	未詳	王室族譜·八高祖圖·印譜· 地圖·列聖御筆	· 書目 현존
寶蘇堂	憲宗年間 (1847년 경)	樂善齋의 퇴칸	書畫·印譜	· 현종의 私邸로 쓰였던 곳	

	奉謨堂	1776	閱古觀의西南	御製·御筆·御書·寶冊·印章·搨本	· 본래 閱武亭터, 1911년 철거
	書香閣	1776	宙合樓의 서쪽	御眞·봉안·주변에 冊庫가 있었음.	· 원래 眞殿과 蠶邱로 쓰임 · 고종 연간 어필 다수 보관
	承華樓	正祖年間 建立 憲宗年間 改稱	樂善齋 북쪽	御筆·御書, 중국 및 조선의 書畫·筆帖·印譜 보관	· 개칭 전 小宙合樓로 명명. 아래층은 儀宸閣
	西庫	1776	皆有窩 서쪽	열성어제어필, 역대 서화첩	· 書目 현존
	養志堂	正祖年間	璿源殿 동쪽	御眞, 明 寶藏品, 御筆	· 舊名은 孫志堂이나 孝宗에 改稱
	演慶堂	1828 (純祖 28)	開錦齋의 남쪽	藏書, 翼宗의 御眞·봉안	· 翼宗이 春邱에 있을 때 건립, 延경당 서쪽의 書庫에 보관, 書目 현존
	閱古觀	1776	瑞德臺의 오테터	서책, 御筆·中國書畫	· 乾隆皇室의 內賜本 多數
	倚斗閣	1827 (純祖 27)	映花堂의 북쪽	中國 및 朝鮮書籍	· 翼宗이 春宮時 건립
	摛文院	1781 (正祖 5)	璿源殿의 서쪽	御眞·御製·御筆, 璿源譜牒, 書籍	· “內閣”, 고종 연간 경복궁으 로 자료 이관, 1868년경 「文院書目」작성
	宙合樓	1776	규장각 상층	藏書·御製御筆·御眞·搨本 봉안	· 규장각에 보관된 전적을 열 람하던 곳
	春坊	正祖年間	壽康齋 동쪽	열성어필, 서적, 조선 서화첩	· 藏書閣 구비, 고종 연간 봉모당 장서 보관
	欽文閣	高宗年間	熙政堂의 남쪽	書籍 收藏	· 현재는 없음
三. 慶熙宮	光明殿	英祖年間	隆武堂의 북쪽	太祖 御眞·봉안	
	文獻閣	1700 (肅宗 26)	景賢堂의 동쪽	朝鮮의 書籍 보관	· 廟庫에서 이관된 서적 · 書目 현존
	泰寧殿	1733년 경	資政殿의 서쪽	御眞·봉안	· 英祖의 「重修上樑文」
四. 德壽宮	濟明殿	高宗年間	卽昨堂 근처	고종·순증어진 봉안	· 1904년 흙문각의 어진을 준 명전으로 移奉
	欽文閣	高宗年間	덕수궁 서쪽 漱玉軒 근처	왕실서책과 서화 보관 御眞 草 本, 高宗·純宗 御眞·봉안	· 규장각자료 일부 이관됨 · 1904년 4월 15일 화재로 전각 손실
其他	寶文閣	高宗年間	경복궁 추정	왕실서책·地圖·서화	· 書目 현존 · 金永壽 (1829-1899)의 「寶文閣上樑文」

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收藏領域이 일정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先王의 글씨와 그림, 앞 시기부터 전래된 서화는 창덕궁의 奎章閣, 奉謨堂, 摛文院, 書香閣, 西庫, 皆有窩, 演慶堂等地에 주로 보관했던 반면, 새롭게 구입

된 자료는 대부분 경복궁, 특히 왕의 사적인 공간인 침전영역에 밀집해서 分藏되었다. 왕의 일상공간에 서화수장처가 위치한 것은 18세기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고종의 경우 침전과 후원을 집무처나 내외신 접견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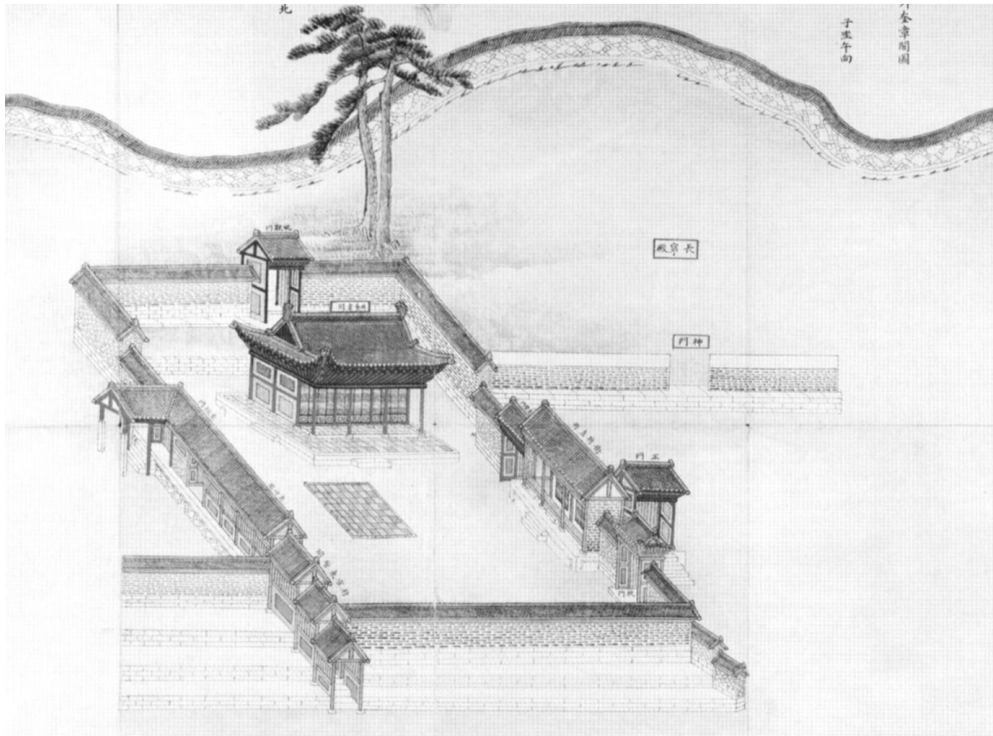
고종 재위 중기에는 그가 주로 머물렀던 경복궁 연침 공간 및 1876년에 일어난 경복궁 대화재 후 잠시 移御했던 창덕궁에 있었던 수장처를 중심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량의 수장목록이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당시 작성된 수장목록은 30여 건에 달하며 과반수가 대한제국 선포 이전인 고종 재위 중기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sup>16</sup> 이러한 왕실서목은 궁중에 소장되었던 서화작품의 구체적인 명칭과 수장규모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미술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承華樓, 緝敬堂 소장 서화를 기록한 『承華樓書目』이나 『緝敬堂曝曬書目』은 19세기에 이르면 서책보다는 서화를 비중 있게 다룬 수장처가 등장했고 각각 1,000여 점 이상의 방대한 서화작품이 수장되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기간에 작성된 書目들이 미술사학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까지 연대불명으로 남아 있는 작품의 연대를 제시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는데 있다. 1884년에 작성된 『內下冊子目錄』에 기재된 〈江華府宮殿圖〉와 〈俄國輿地圖〉를 예로 들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18세기 또는 19세기로 제작시기가 추정되는 〈江華府宮殿圖〉(도5)는 서목의 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1884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하한시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고종 연간 러시아근방을 그린 회화식 지도인 〈俄國輿地圖〉(도6)는 1884년-1886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어왔지만, 이 서목에 근거해서 1884년에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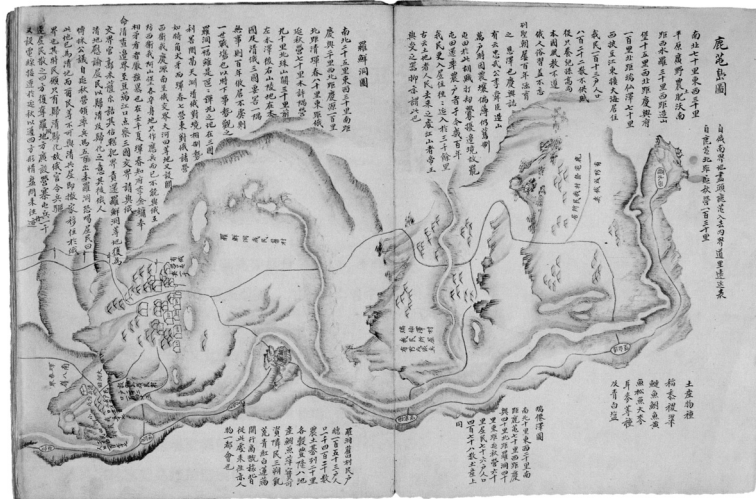
고종이 주된 집무처로 이용한 경복궁 침전영역에 있던 대표적인 서화수장처로 緝敬堂을 들 수 있다. 19세기 전반 현종이 창덕궁 承華樓에 많은 서화를 보관했다면, 고종 재위 중기에는 집경당이 그러한 승화루에 비견되는 대표적인 서화수장처로서 역할을 하였다(도7). 그럼에도 이 곳은 오늘날까지 그 기능과 가치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단지 신료들의 접견처로 諱誌된 실정이다. 집경당은 1890년경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란히 건립된 威和堂과 더불어 침전인 興福殿에 예속된 건물이었고 주로 고종의 講學 공간으로 이용된 곳이다.<sup>18</sup>

<sup>16</sup> 당시 작성된 왕실서목에 대해서는 황정연 앞의 논문(2007) 참조

<sup>17</sup> 〈俄國輿地圖〉에 관해서는 『江北日記·江左輿地記·我國輿地圖』(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참조



도5 작자미상, 《江華府宮殿圖》중 《奎章閣》, 1884년 이전, 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활 경복궁 소장



도6 金光薰·申先郁編, 《俄國輿地圖》부분, 지본담채, 35.8×27.2cm, 현 장서각 소장 \*활 경복궁 소장



도7 경북궁 緝敬堂의 수리 전 모습, 1890년경 건립 (필자촬영)

이러한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작품은 『緝敬堂曝曬書目』과 『緝敬堂曝曬書目剩欠總錄』이라는 두 건의 서목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두 서목의 내역을 정리한 <표 2>에 의하면 19세기 말 집경당에는 총 25,000여 점 이상의 典籍이 구비되어 있었고, 이 중 서화작품은 총 1,073점으로 서책수장에 집중된 동시기 다른 전각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양이다. 집경당 소장 서화작품은 창덕궁 승화루 및 기타 전각에서 옮겨온 자료들로 구성되었지만 청대 서예가들의 글씨와 서양지도, 일본의 최신 화보 등 왕실이 새롭게 구입한 동시대 작품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서화를 서적의 범주가 아닌 “書畫部”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도 子部의 하위항목에 기재했던 기존의 분류체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이며, 이는 곧 고종 연간 왕실의 서화수장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그만큼 고양되었던 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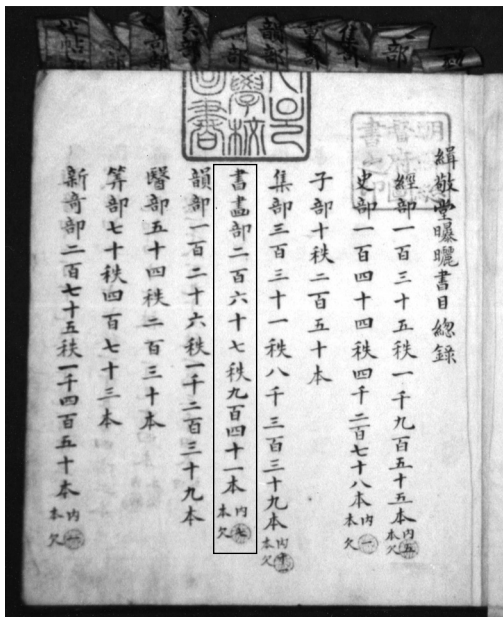
집경당 소장품과 마찬가지로 고종 재위 중기 동안 작성된 서목을 통해 경북궁에는 1880년대 이후 중국을 통해 각종 서양서적과 수학, 천문 과학서, 일본관련 자료가 다량 유입된

<sup>18</sup> 집경당의 건립연대와 기능에 대해서는 황정연, 「고종연간 緝敬堂의 운용과 宮中 書畫收藏」, 『文化財』 四十一號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pp. 208-214 참조.

<sup>19</sup> 두 서목은 1890년 집경당이 건립되고 소장품이 1891년 집옥재로 이동되기 전인 1890-189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는 집경당 소장품을 점검하고 포쇄할 때 작성된 원목록이고, 후자는 포쇄서목에서 누락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緝敬堂 所藏 典籍 및 書畫資料의 규모

緝敬堂曝曬書目			緝敬堂曝曬書目 剩欠總錄(剩秩)			총계
순번	부	수량	순번	부	수량	
1	經部	135秩 1955本	1	經部	11秩 85本	146秩 2040本
2	史部	144秩 4278本	2	史部	11秩 289本	155秩 4567本
3	子部	10秩 250本	3	子部	해당사항 없음	10秩 250本
4	集部	331秩 8339本	4	集部	29秩 1182本	360秩 9521本
5	書畫部	267秩 941本	5	書畫部	35秩 132本	302秩 1073本
6	韻部	126秩 1239本	6	韻部	7秩 44本	133秩 1283本
7	醫部	54秩 230本	7	醫部	6秩 9本	60秩 239本
8	算部	70秩 473本	8	算部	3秩 7本	73秩 480本
9	新奇部	275秩 1450本	9	新奇部	37秩 133本	312秩 1583本
10	雜著部	219秩 1953本	10	雜著部	18秩 124本	237秩 2077本
11	試帖部	270秩 1542本	11	試帖部	16秩 154本	286秩 1696本
12	小說部	47秩 394本	12	小說部	해당사항 없음	47秩 394本



도 8 『緝敬堂曝曬書目』의 첫장 「書畫部」부분, 1890-1891년경 작성, 1책 98장, 22.9×21.1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네모칸 처리는 필자에 의함.

사실이 파악된다. 즉 19세기 초 철종-헌종 연간에 주로 소장품이 형성되었던 승화루에 중국과 조선의 금석문 자료, 17·18세기 名書畫家의 작품 등 다양한 감상용 자료가 소장되었던 것과 달리 고종 연간 왕실은 서화의 수집에 있어 신문물의 수용을 적극 고려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당시 궁중 소장 서화자료가 고종대 왕실의 예술취향을 대변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넓게는 해외로부터 當代 최신의 문화 조류를 수용하고자한 왕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한제국기(1897-1907)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황실체제로 전환하면서 궁중 소장 자료의 관리체계 역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먼저 고종의 궁중 소장 자료에 대한 관심과 확고한 통치를 간접적으로 표방하고자 한 의도로 황색비단으로 장정한 御覽用 書目이 제작되었다.<sup>20</sup> 또한 수장처의 중심이 기존에 경복궁 집경당으로 대표되는 침전지역에서 集玉齋를 비롯하여 乾淸宮 영역이 속한 後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고종은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집옥재와 건청궁을 주된 집무처이자 私邸로 이용했기 때문에 서화수장의 중심지가 침전영역에서 후원으로 이동되는 변화가 있었고 고종 퇴위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복궁 후원은 19세기 궁중 서화수장의 마지막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복궁 후원영역에 서화가 보관되었던 곳으로 선왕의 어진을 봉안한 寶賢堂을 비롯하여 건청궁 소속 전각들인 長安堂, 坤寧閣, 神武門 근처의 春安堂 등이 있었으나, 고종 재위 후반기를 지나 대한제국기까지 궁중의 대표적인 궁중 도서관이자 서화수장처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전각은 集玉齋였다고 할 수 있다(도9).<sup>21</sup> 이러한 집옥재의 서화컬렉션이 형성되는데 토대를 이룬 것은 앞서 살펴본 집경당 소장품이었다.

1891년 7월 고종이 창덕궁에 있던 집옥재를 경복궁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집경당 소장품 중 상당수가 집옥재로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집경당이 집옥재와 거리상 가깝고 중국에서 건너온 다량의 최신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고종이 구상했던 궁중 도서관의 성격과 부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집옥재 소장품은 창덕궁 承華

<sup>20</sup>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曝曬書冊目錄』(古262-1)이다. 이 書目은 건청궁의 장안당, 근령함을 비롯하여 각 官監廳에 소장되었던 서책 및 서화를 기록한 것이다. 표지가 황색 국화문 비단으로 장정되었고 표제의 테두리가 朱絲欄으로 되어 있어 御覽用이었음을 알 수 있다.

<sup>21</sup> 集玉齋의 연혁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集玉齋修理調查報告書』(문화재청, 2005) 참조.



도9 集玉齋 정면 입구 모습, 1891년 중반, 경북궁 소개(『集玉齋修葺調查報告書』, p. 18)

樓, 觀物軒, 春坊 등지에서 가져온 작품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것이지만 집경당에서 옮겨온 작품이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했다. 집옥제가 경북궁으로 移建된 후 집경당에서 이관된 서화 자료를 정리한 <표3>을 보면<sup>22</sup>, 승화루 소장품은 일부만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반면 집경당에 소장되었던 저록과 작품은 적지 않은 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1910년대 초 집옥제 소장품이 일제통감부가 설치한 帝室圖書館으로 흡수되었고 이 자료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인계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규장각에 소장된 집옥제 舊藏本은 서화관계 著錄과 題跋集, 서첩의 복각본, 畫譜가 많고 肉筆本 그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마도 통감부에 의해 제실도서관이 설치될 때 누락되었거나 李王家博物館으로의 이동, 그리고 궁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인 아닌가 한다.

<sup>22</sup> 본 표는 『承華樓書目』, 『經政堂曝曬書目』, 『集玉齋書籍目錄』(규장각 소장본, 奎11676)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3 고종 연간 集玉齋로 이동된 緝敬堂 舊藏 서화작품 및 관련저록

제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여부 (○/×)	이동경로	제목	수량	현 규장각 소장여부 (○/×)	이동경로
兩漢金石記	8卷	○	緝敬堂 → 集玉齋	集古公書式	2卷	○	緝敬堂 → 集玉齋
篆字彙	12卷	○	同上	書形圖說	1卷	×	同上
金石萃編	64卷	○	承華樓 → 緝敬堂 → 集玉齋	照像略法	1卷	○	同上
夢園書畫緣	16卷	○	緝敬堂 → 集玉齋	繪地法原	1卷	○	同上
北齋漫書	15卷	×	同上	寰瀛書報	1卷	×	同上
楷法溯源	14卷	○	同上	雲溪山館書譜	2卷	○	同上
金石叢書	40卷	○	同上	三國志像	2卷	×	同上
漢魏叢書	80卷	○	同上	申江勝景圖	2卷	○	同上
耕辨	8卷	○	同上	論畫淺說	1卷	○	同上
耕釋	8卷	○	同上	廣陵名勝圖	1卷	○	同上
紅樓圖詠	2卷	×	同上. 『집경당포쇄서목』에는 紅樓夢圖詠으로 기재	三才圖會	79卷	×	同上
快雪堂法書	3卷	○	同上	褚遂良聖教序	1帖	×	同上
歷代名將圖	2卷	○	同上	王右軍書帖	5卷	×	同上
紅荳樹館書書記	6卷	○	同上	馮中丞墨蹟	1卷	○	同上
畫譜采新	4卷	○	同上	貞隱園法帖	5卷	×	同上
畫譜	2卷	○	同上	樂毅論	1卷	○	同上
無雙譜	1卷	○	承華樓 → 緝敬堂 → 集玉齋 *총 4 권에서 3 권이 유실된 상태로 전해짐.	趙之謙	1卷	×	同上
杜氏徵古畫傳	3卷	×	緝敬堂→集玉齋	聖教序	1卷	×	同上
海上名家畫稿	2卷	○	同上	趙孟頫書	4卷	×	同上
耕織圖	2卷	○	同上	趙孟頫墨蹟	1帖	○	同上
御製耕織圖	1卷	○	同上	成親王書帖	6卷	×	同上
薛氏鐘鼎款識	4卷	○	同上	成親王書帖	1卷	○	同上
鮑刻鐘鼎彝器款識	4卷	×	同上	墨香居畫識	24卷	○	同上
博古圖	12卷	×	同上	圓明園圖詠	2卷	×	同上

桐陰論畫	4卷	○	同上	鄧石如隸冊	1卷	×	同上
海上群芳譜	1卷	○	同上	歐陽詢書帖	1帖	×	同上
東坡書帖	1卷	×	同上	藏寶帖	1帖	○	承華樓→緝敬堂 →集玉齋
玄對先生畫譜	6卷	○	同上	俞文清公手蹟	1帖	×	緝敬堂→集玉齋
毓秀堂畫傳	2卷	○	同上	蘇東坡書帖	3帖	×	同上
國朝畫識	8卷	○	同上	九成宮	1帖	○	同上
清河書畫舫	12卷	○	同上	晚香堂蘇帖	1帖	×	同上
金石綜例	1卷	○	同上	梅書草堂晉唐小楷	1帖	×	同上
金石三例	8卷	○	同上	毅齋筆帖	1帖	○	同上
續刻金石三例	4卷	○	同上	孫過庭譜	1帖	○	同上
金石跋尾	2卷	×	同上	趙書洛神賦	1帖	○	同上
楚迹圖	1卷	×	同上	何紹基書帖	4帖	×	同上
歷代輿地沿革圖	1卷	○	同上	內榻快雪堂	5帖	○	同上
京畿金石考	2卷	×	同上	初榻詒晉齋	8帖	×	同上
鴻雪因緣畫	3卷	○	同上	成親王巾箱帖	4帖	○	同上
十竹齋書畫譜	8卷	○	同上	完白山民墨寶	1帖	○	同上
東洋梅嶺畫譜	3卷	×	同上	原榻玉版十三行蘭亭	1帖	○	同上
竹洞畫稿	2卷	○	同上	着色沈心海士女(簇子)	2次	×	同上
漢畫指南	3卷	○	同上	俞太史百壽圖	1帖	×	同上
水滸圖	1卷	×	同上	鄧石如隸冊書柱聯	1次	×	同上
芥子園畫傳	4卷	×	同上	費曉樓着色四美圖(簇子)	2次	×	同上
晚笑堂畫	2卷	×	同上	梁文定公墨蹟	1次	×	同上
白描畫譜	1卷	×	同上	美人圖	2張	×	同上
海上青樓圖	1卷	×	同上	東洋地球圖	1軸	×	同上
春影圖	1卷	×	同上	西洋地球圖	1軸	×	同上
凌烟閣圖	1卷	○	同上	南北極圖	2軸	×	同上
大字九成宮	1卷	×	同上	東西球圖	1軸	×	同上
楊泳春墨蹟	1卷	×	同上	蘇藩司全圖	1軸	×	同上

郭臨九成宮	1卷	○	同上	元章拜石圖	1軸	×	同上
黃臨九成宮	1卷	○	同上	純廟宸翰	1軸	×	同上
唐詩畫譜	4卷	○	同上	方琮山水真跡	1軸	×	同上

그럼에도 표에서 제시된 내역은 1800년대 이후 궁중 소장 서화가 承華樓→緝敬堂→集玉齋라는 19세기 대표적인 궁중 수장처를 거치며 전승된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집옥재로 집경당 수장품을 대대적으로 이 건한 후 고종은 집옥재에 선왕의 어진을 봉안한 것은 물론 대내외신 접견, 그리고 수장품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면서 왕실의 위상제고 정책을 추진하였고 더불어 후원지역 수장처에 대한 경제적인 물력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1895년부터 1907년까지 內藏院에서 작성한 『會計冊』에 의하면 매년 수시로 “集玉齋經費”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또한 집옥재 수장품의 내역을 기록한 集玉齋書目이 여러 건 작성된 사실을 통해 국왕의 보호 아래 수장품을 늘려갔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때 작성된 서목에 의하면 동시기 중국에서 들어온 서화, 금석탁본, 畫譜 약 900여 점 정도가 확인되고 이밖에 〈西洋球圖〉, 〈萬國輿圖〉와 같은 서양지도나 세계지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sup>24</sup>

그럼에도 고종이 재위 후반기에 심열을 기울였던 신서적 및 서화구입 정책은 일본이 서서히 왕실자료 침탈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1907년 內閣 대신들은 황제의 자리를 純宗에게 양위하게 하고 일본과 합작하여 官制를 크게 개정하였다. 이들은 舊宗親府인 宗正院을 비롯한 奉常寺, 宗籍司, 弘文館 등을 폐지하고 규장각의 기능을 오히려 확장·강화하였다.<sup>25</sup> 이 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을 염려한 고종은 帝室圖書館을 설립하고자 당시 宮內府大臣이었던 閔丙奭(1858-1940)에게 규장각, 홍문관, 集玉齋, 春坊, 北漢山

<sup>23</sup> 『會計冊』(1896-1898), 1冊, 규장각 소장본(奎1965-1966); 『會計冊』(1895-1907) 9冊, 규장각 소장본(奎19113). 고종연간 왕실(황실)의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李潤相 「1894~1907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태학사, 2007) 참조.

<sup>24</sup>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集玉齋書籍目錄』, 『集玉齋書籍調查記』, 『集玉齋目錄外書冊』 등을 통해 확인된다. 고종은 德壽宮에도 御眞을 봉안하였고 귀중 서책과 서화작품을 수장하였다. 그러나 1900년, 1901년, 1904년 세 번에 걸쳐 발생한 덕수궁 화재로 인해 중요한 서화를 보관했던 觀文閣, 欽文閣 등이 모두 소실됨에 따라 궁중에 秘藏되었던 많은 서화가 불타버리고 말았다. 高宗 御印의 日曆을 모은 『德壽宮印存』(장서각 소장본, K3-558)에는 관문각과 홍문각에 소장된 서화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觀文閣書書記”, “欽文閣書書記” 등 收藏印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行宮 등에 소장된 전적을 함께 모아 정리할 것을 명하였다.<sup>26</sup> 이 때 수집된 전적은 10만여 건이었으며, 서화만 단독적으로 기록한 목록은 없고 1910년경에 작성된 『譜閣奉藏品目錄』, 『春坊藏書總錄』, 『奉諫堂後庫目錄』, 『北漢山冊圖錄』 등을 통해 여러 곳에 分藏되었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고종 연간 동안에는 전각의 開閉와 도서정리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보관처가 변경되었거나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자료의 유실이라는 결과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귀중한 서화의 경우 서책에 비해 피해가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00년대 초에 작성된 목록에 수록된 일반 서화작품의 수가 서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아울러 일제에 의해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궁중 소장품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순종 연간에 제작된 서목 중 희귀본이나 眞本으로 확인된 작품을 “博物館去”라고 작게 附記해 놓은 사례는<sup>27</sup> 일제강점 초기 궁중 서화수장품 일부가 총독부박물관이나 이왕가박물관 등으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 IV.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품의 내역변화와 특징

고종 연간 동안 궁중에 서화를 보관했던 수장처가 다수 건립되었고 서화를 전문적으로 보관했던 전각이 존재했던 만큼 지금부터는 수집된 작품을 통해 유입양상과 왕실의 서화취향, 그리고 조선 말기 서화경향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당시 궁중에 소장되었던 서화작품의 국적과 시대, 작가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일일이 비교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고종 연간 궁중 수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明·清代 新書畫 및 版畫의 구입과 외래 畵譜의 유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25</sup>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徵』(韓國精神文化研究員, 1996), pp. 8-17 참조

<sup>26</sup> 이 때 통합된 전적의 내역은 宮內府 奎章閣 圖書課에 의해 1909년 『帝室圖書目錄』(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NO. 99209)으로 간행되었다.

<sup>27</sup> 순종 연간에 작성된 『奉諫堂後庫藏書目錄』에 明 太祖御筆 ‘龍’字 簇子 한 건이 眞本이라는 이유로 박물관으로 옮겨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1. 明·清代新書畫 및 版畫의 유입

고종 연간 동안에는 시기를 막론하고 이전부터 전래된 열성어필과 역대 서화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었고 적어도 대원군 집권기인 고종 초반기까지 그러한 분위기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종 재위 중기 이후 이러한 경향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여 1873년 10월 고종의 親政 선포 후 경복궁으로 수장처를 옮긴 이후로는 우리나라 작품보다는 중국 및 일본 서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집한 경향이 짙어졌다.

당시 고종은 열강의 침입과 개항기라는 특수한 시대상황 속에서 대외개방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1882년 池錫永(1855-1935)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듯, 선진적인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sup>28</sup> 고종의 이러한 대외인식은 왕실고유 전래의 자료위주였던 궁중 수장의 경향을 서서히 외래적인 성격으로 변모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 서화풍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조선 말기의 경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컸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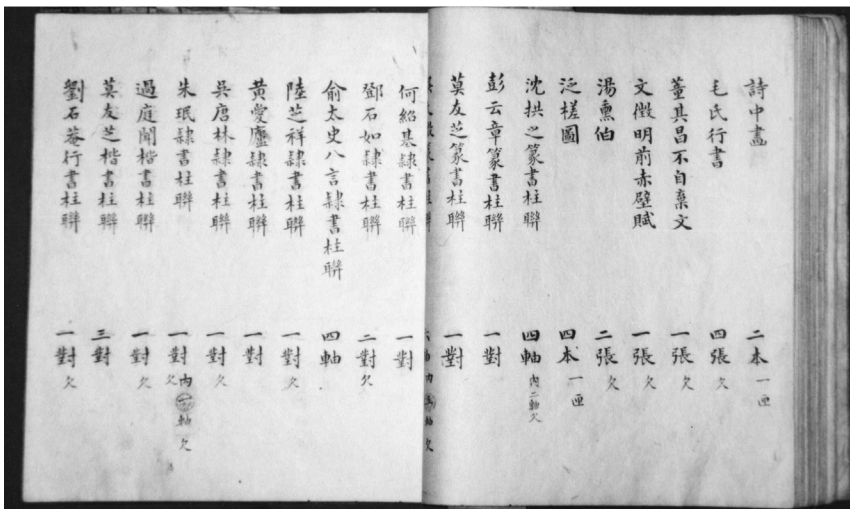
고종의 국내외 신서적을 구입하고자 한 정책이 반영된 예로 1800년대 후반에 『上海書莊圖各種書籍圖帖目錄』(이하 『상해서장목록』)을 들 수 있다.<sup>29</sup>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서목은 상해에 있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서책, 서화첩의 내역과 가격을 왕실에서 기록한 것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대 서화관계 著錄과 書畫帖, 書譜, 판화를 비롯하여 任雄(1822-1857), 任薰(1835-1898), 任頤(伯年, 1840-1895) 등 海上派 화가들과 澄石如(1743-1805), 趙之謙(1829-1884), 吳大澂(1835-1902) 등 청대 서예들의 작품이 다량 수록되어 있어 19세기 후반 중국 고서점에서 거래되었던 서화작품의 실상을 보여준다(도 10).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목록에 기재된 상당수의 작품을 왕실에서 구입하여 실제로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소개한 『집경당포쇄서목』에 수록된 서화작품과 화보 등이 『상해서장목록』에 수록된 것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시 왕실이 중국서화에 관한 정보습득 차원에서 더 나아가 財政을 늘려 외국의 新書畫를 적극적으로 구입했

<sup>28</sup> 『高宗實錄』卷9, 19年(1882) 8月 丙子(23日)條. 이날 고종은 각국의 선진 圖書를 구입할 것을 청원한 지척영의 해안을 높이 평가하며 곧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sup>29</sup> 목록서의 내용 중 “光緒戊子(1888) 望 三益齋主人”이라는 문구에 의거하여 최소 1888년경에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익齋는 상해 書店名이다. 이 목록서는 이태진, 『奎章閣中國本圖書와 集玉齋圖書』, 『민족문화는총』 16(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pp. 169-188에 처음 소개되었다. 고종의 도서관이었던 集玉齋에 소장되었던 舊藏本이다.

任阜長歲朝圖中堂着色水	每幅洋二角五分
又 綾邊裱成	每幅洋五角五分
又 五尺翎毛花卉着色水	每幅洋九角
又 裱成者	另加洋六角
任伯年着色水衆神圖	每幅洋一元
又 裱成者	另加洋六角
又 三陽開泰着色中堂	每幅洋三角五分
又 蕉葉題詩着色中堂	每幅洋三角五分
又 元章拜石着色中堂	每幅洋三角五分
又 撫松盤桓着色中堂	每幅洋三角五分
又 灞橋風雪着色中堂	每幅洋三角五分
又 三尺琴條着色水	每張洋一角五分
又 騎驢圖立軸	每張洋三角五分
又 聽琴圖立軸	每張洋六角
又 歲朝圖立軸	每張洋六角
又 歲朝圖立軸	每張洋六角
又 壽平三尺梅蘭竹菊	每張洋六角
又 顧忠卿着色人物屏	每幅洋一元三角
又 衆神圖着色水	每幅洋一元三角
又 裱成者	每幅洋一元六角五分
舒洋橋五尺人物條幅着色水	每堂洋六角

도10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目錄』에 수록된 海派 화가들의 작품. 1880년대 작성. 장서각 소장



도11 『집경당포쇄서목』에 기록된 清代 柱聯書 1890년 경. 규장각 소장(필자 촬영)

음을 말해준다.

서예작품에 있어서는 王羲之(307-365), 趙孟頫(1254-1322), 文徵明(1470-1559), 董其昌(1555-1636) 등 앞 시대 정통 서예가들의 작품 외에 청대 고증학의 열풍을 반영한 각종 金石錄鼎文, 19세기 중국 書壇에서 유행한 柱聯 및 對聯書가 국내로 상당수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도 11). 건물의 기둥이나 양벽을 장식하는 주련의 전통은 중국에서는 이미 漢代부터 등장했지만<sup>30</sup> 清乾隆帝 이후 융성하면서 우리나라 19세기 서예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李昉應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조선 말기에 對聯 형식이 유행한 현상이라든지 19세기 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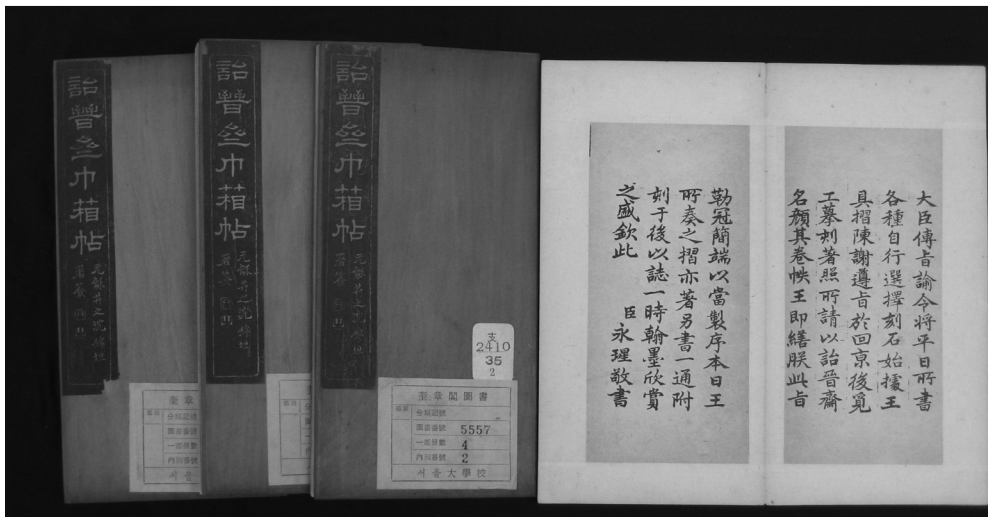


도 12 李昞應 〈行書對聯〉, 19세기, 紙本수묵, 29.4 × 124.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3,13-1 창덕궁 演慶堂의 대청에 걸린 清 成親王의 글씨 모각본 柱聯과 그 세부 (필자 촬영)



도14 成親王, 《詒晉齋巾箱帖》, 1880년, 摹刻本, 現 규장각 소장 \*舊 集玉齋 소장 (필자 촬영)



도15 劉原 繪, 『凌煙閣圖』중  
〈陸東道像〉, 淸, 1884년  
刊本, 現 규장각소장 \*舊  
集玉齋 소장



도16 金古良 繪, 『無雙譜』중  
〈伏生像〉, 淸, 19세기  
刊本, 現 규장각소장 \*舊  
集玉齋 소장

지를 개척한 作例로 평가받는 작품들로서<sup>34</sup> 고종 연간 궁중으로 유입된 중국판화의 수준을 기념하는 데 기준이 된다.

<sup>34</sup> 두 판화에 대한 설명은 고바야시 히로미쓰,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 판화』(사공사, 2002) 참조.

## 2. 동시대 中國 및 日本 畫譜의 유입

고종 후반기 동안 외래 작품의 유입이 가중되는 가운데, 궁중에 여러 종의 중국 및 일본 화보가 유입된 사례가 발견된다. 중국화보의 조선 궁중으로의 유입은 『奎章總目』(1781)에 근거하여 18세기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선화단에 큰 영향을 끼친 『顧氏畫譜』, 『芥子園畫傳』과 같은 전통적인 화보는 조선 말기까지 궁중의 여러 전각에 보관되었고 분량도 상당량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종 연간에 들어와 주목되는 점은 동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최신 화보가 다량 유입되었다는 사실로서, 중국화보는 다른 서적과 마찬가지로 주로 上海를 통해 구입한 것이 대다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화보들의 간행연대를 보면 1870-1880년대 사이에 간행된 것이 다수여서 고종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화보는 대부분 청대회화 및 앞서 출간된 동시대 畫譜에 기초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역시 청대 화풍을 수용한 조선 말기 화단의 경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예를 들어 19세기에 유행한 怪石圖의 경우 丁學敎(1832-1914)의 〈怪石圖〉에서 보이는 네모난 암석을 층층이 겹쳐 놓은 표현은 淸 王寅(19세기-20세기 초)이 1880년에 간행한 『台梅石譜』에 수록된 괴석의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도 17, 18), 淸 朱芾(19세기)이 1886년에 간행한 화보인 『畫

표 4 고종 연간 궁중[경복궁 소장 19세기 刊本

畫譜名	刊年·刊本	畫譜名	刊年·刊本
歷代名公畫譜	淸板本	雲溪山館畫稿	1879
芥子園畫傳	1888	墨香居畫識	淸板本
唐詩畫譜	淸板本	畫報采新	1886
十竹齋畫譜	1879	台梅石譜	1880
詩中畫	淸板本	台梅竹譜	1880
海上名家畫稿	1885	台梅畫譜	1880
海上群芳譜	1884	白描畫譜	淸板本
玄對先生畫譜	1804	暢懷畫譜	淸板本
毓秀堂畫傳	1883	點石齋叢書	1885
國朝畫識	1831	梅嶺畫譜	淸板本
集古名公畫式	同上	萃新畫譜	淸板本



도 17 丁學教, 《怪石圖》, 19기, 129.1 × 29.6cm, 지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좌)

도 18 王寅 編, 『梅石譜』 부분, 淸, 1880년 刊, 현 규장각소장 \*舊集玉齋 소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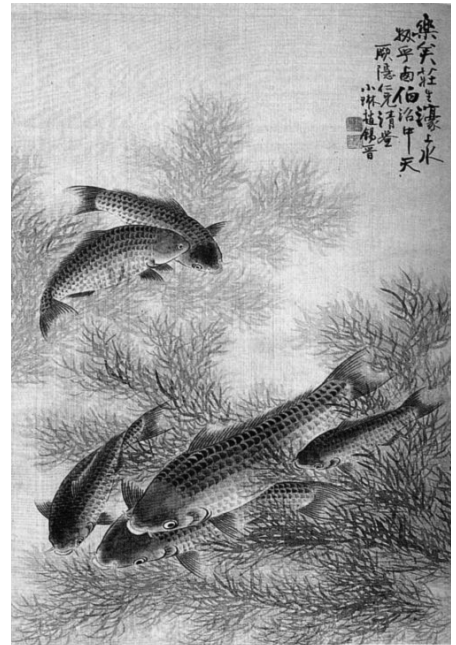
報采新』에 수록된 어해도는 張承業(1843-1897), 安中植(1861-1919), 池雲英(1852-1935), 趙錫晉(1853-1920) 등을 중심으로 유행한 조선 말기 魚蟹圖 제작과 유사한 소재를 보여준다(도 19, 20).

한편, 일본에서 간행된 畫譜로는 『名數畫譜』(大原東野 編, 1810), 『漢畫指南二編』(河村

35 상해에서 출간된 『詩中畫』, 『海上名家畫稿』, 『點石齋叢書』, 『毓秀堂畫傳』은 張承業, 安中植, 池雲英, 趙錫晉 등 근대 화가들이 상해 화단의 산수·인물화풍을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서였음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현권, 『淸末 上海地域 畫風이 朝鮮末·近代繪畫에 미친 影響』(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최경현, 『19世紀後半 20世紀初 上海地域 畫壇과 韓國 畫壇과의 교류 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그 외 조선 말기 畫壇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안희준, 『朝鮮王朝 末期(약 1850-1910)의 畫壇과 畫風』, 『조선 말기 회화전』(삼성미술관, 2006), pp. 133-146 참조.



도19 朱芾編, 『畫報采新』부분, 1886년刊, 현 규장각소장 \*舊集玉齋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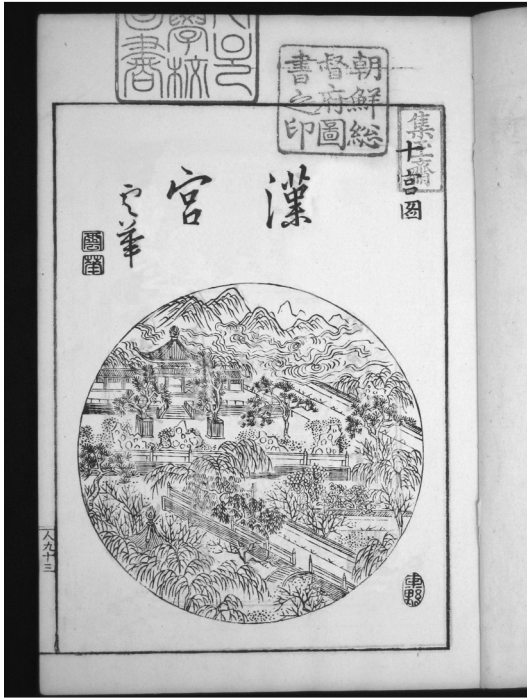
도20 趙錫晉, 〈魚蟹圖〉, 19세기, 건본담채, 개인소장

文鳳, 編, 1811), 『竹洞畫稿』(中林竹洞 編, 1812), 『杜氏近徵古畫傳』(中江松篁 編, 1813)이 파악되었다. 일본화보는 중국화보에 비해 유입된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1876년 조일 통상조약 이후 일본그림이 궁중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무엇보다도 日本地圖가 상당수 유입된 사실을 통해 일본에 대한 고종황실의 정치적인 관심이 증대되던 분위기와 맞물려 수장된 것으로 판단된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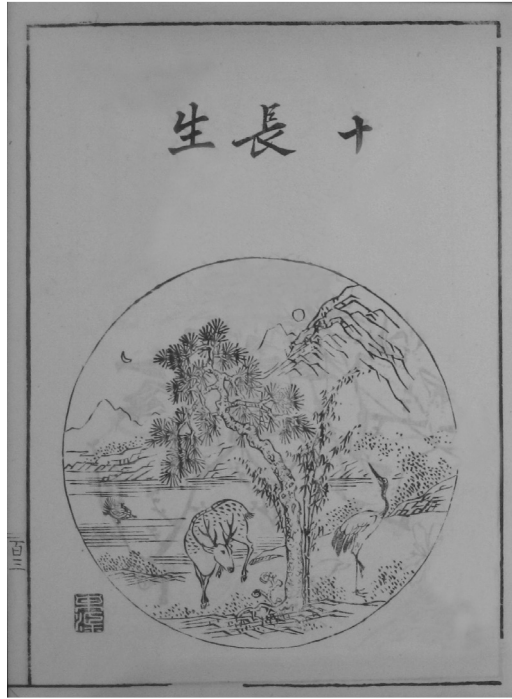
이 중 『名數畫譜』는 1885년 상해에서 點石齋叢書가 간행되는 데 영향을 끼친 일본의 대표적인 화보로서,<sup>37</sup> 이 책에는 長壽 또는 壽福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말기 궁중에서 제작된 장식화 또는 민화풍의 그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세기 조선왕실에서 그려진 漢宮圖라든지 十長生과 동일한 소재가 『명수화보』에 수록된 것이 주목된다(도 21, 22). 물론 화보 속의 漢宮圖와 十長生圖를 현존하는 19세기 궁중회화와 비교

<sup>36</sup> 19세기에 작성된 『承華禮書目』, 『內下冊子目錄』, 『內下庫目錄』 등에는 “日本人畫”, “日本國人物畫一軸”이라는 제목의 일본화를 비롯하여 나가사키(長崎), 코베(神戸), 요코하마(橫濱), 오사카(大阪) 등 일본 지형을 그림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sup>37</sup> 자세한 내용은 釋毓芝, 「1870年代上海的日本網絡與任伯年作品中的日本養分」, 『美術史研究集刊』第4期(國立臺灣大學, 2003), pp. 159-242 참조.



도21 大原東野編, 『名數書譜』중〈漢宮〉, 1810년刊.  
현 규장각소장 \*舊集玉齋 소장



도22 大原東野編, 『名數書譜』중〈十長生〉, 1810년刊.  
현 규장각소장 \*舊集玉齋 소장

하면, 보통 넓은 橫幅으로된 구성으로 인해 구도와 경물배치, 세부 표현에 있어 온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없고 다만 서로 유사한 소재가 등장한다는 점이 파악될 뿐이다(도 23, 24). 그러나 중국화보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은 이러한 주제가 조선 말기 국내로 유입된 일본화보에 수록되었다는 점, 동시기 조선 궁중회화의 중요한 吉祥的인 주제로 유행했다는 사실은 兩國간 회화교류의 일면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民畫의 주제로 폭넓게 차용된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19세기 궁중으로 유입된 일본화보와 조선 화단의 영향관계에 대해 그동안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자료는 그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것이자 지금까지 부각되지 못한 고종 연간 궁중 수장의 국제적인 성격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도23 작가미상, 《漢宮圖》부분, 19세기 후반, 94 × 210cm, 지본채색,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필 창덕궁 소장



도24 작가미상, 《長生圖》, 19세기 후반, 10첩병풍, 견본채색, 208 × 38.9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필 창덕궁 소장

## V. 맺음말

조선시대 궁중 서화수장사에 있어 고종 연간은 일제에 의한 본격적인 왕실자료 침탈이 이루어지기 직전 궁중 수장품이 최후로 보관되었던 시기이자 조선 말기 궁중 서화수장의 실상을 가장 온전하게 간직한 시기로서 시대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서화수장은 고종의 정치적 역량과 대외인식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편차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재위 초기(1863-1873. 10)에는 영향력을 행세하지 못한 채 흥선대원군의 주도에 의한 기존 왕실자료 재정리와 奉謨堂 소장 御製御筆의 宗親府로의 이동이 실시된 시기였던 반면 親政을 선포한 재위 중기(1873. 11-1896)는 고종의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 궁중 서화수장이 가장 발전한 시기였다.

고종 재위 중기는 各宮에 흩어져 있던 왕실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정리함으로써 오늘날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자료의 토대를 형성한 시기이다. 아울러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왕실제정 확보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많은 최신 자료를 구입해 올 수 있었고 개항에 따른 적극적인 收藏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19세기 어느 先朝代보다도 풍부한 궁중 컬렉션이 형성될 수 있었다. 경복궁 중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서화수장의 중심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동되었고 고종이 일상을 영위했던 침전영역에 緝敬堂으로 대표되는 전문적인 서화수장처가 마련되었다. 고종은 경복궁에 중국 및 일본 서화를 다량으로 수장하기 시작했고 이 때 수집된 작품들을 토대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궁중 서화수장을 점차 국제적인 성격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고종 재위 중기 이후 궁중 서화수장은 列聖御筆·御書, 前朝로부터 전래된 서책과 서화는 주로 창덕궁의 奎章閣과 그 부속전각에 보관하였고 新購入 書畫 및 畫譜, 각종 서양서는 法宮으로 사용한 경복궁에 보관한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었다. 무엇보다도 고종이 국외의 새로운 자료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寢殿과 後苑 영역에 집중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대한제국이라는 근대국가 건설을 모색하던 그가 궁중 수장을 통해 표방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잘 암시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제국기(1897-1907) 동안 新書籍 및 각종 외래 작품을 수집해 놓은 集玉齋를 중심으로 한 수장처의 운영은 承華樓→緝敬堂→集玉齋를 거치며 19세기를 관통하여 전개된 조선 말기 궁중 서화수장의 연장선에 있었고 성격상 왕실의 서화에 호 차원보다는 당대 최신 문화조류의 수입에 치중한 정책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800년대 이후 제작된 중국 청대 서화, 판화, 畫譜, 총서류 및 일본화보, 서양지도 등 '同時代性'이 강한 자료들이 다수 유입된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조선 고유의 작품을 위주로 했던 전통적인 수장체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외래적인 성격은 19세기 서화계에 있어 金正喜를 중심으로 한 청대 帖學·碑學派 書風의 수용, 그리고 장승업, 안중식, 지운영 등이 청대 산수·인물화풍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화풍의 대대적인 유행을 가져온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들 자료가 국내에 끼친 영향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조선 말기 서화계의 동향 및 근대 서화계로의 이행과정 속에 숨겨진 면면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key words) \_ 19세기(19th century), 高宗(King Gojong), 宮中 書畫收藏(royal art collection), 承華樓(Seunghwa-ru Pavilion), 緝敬堂(Jipgyeong-dang Hall), 集玉齋(Jibok-je Library)

▣ 투고일 2008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08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2일 ▣

## 참고문헌

### 1. 원전 및 보고서

- 『高宗志』(高宗代),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北闕圖形』,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인본, 2006.  
『緝敬堂曝曬書目』,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緝敬堂曝曬書目乘久總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集玉齋書籍目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奎1676).  
『集玉齋修理時冊查報告書』, 문화재청, 2005.  
『창덕궁 승화루 및 일곽: 실측·수리보고서』,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5.  
朝鮮總督府 取調局編, 『奎章閣圖書關係書錄』(191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朝鮮總督府編 『朝鮮古蹟圖譜(宮室篇)』10冊, 朝鮮總督府, 1932.  
『會計冊』(1895-1907), 9冊,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2. 논저

- 고바야시 히로미쓰,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관화』, 시공사, 2002.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제정 연구』, 태학사, 2007.  
김세은, 「高宗初期(1863-1873) 國家義禮 시행의 의미」, 『朝鮮時代史學報』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김현권, 「清末 上海地域 畫風이 朝鮮末·近代繪畫에 미친 影響」,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석사학위 논문, 1996.  
南權熙,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研究』3號, 慶北大 社會科學研究所, 1987.  
박정혜, 「대한제국기 書院제도의 변모와 畫員의 운용」, 『근대미술 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徐珍教,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 追崇사업과 황제권 강화의 사상적 기초」, 『한국근대사연구』19, 한국근대사학회, 2001.  
안외순, 「高宗의 初期(1864-1873) 對外認識 變化와 親政」, 『韓國政治學會報』 제30집, 한국정치학회, 1996.  
安燦燾, 「奎章閣所藏 繪畫의 內容과 性格」, 『韓國文化』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유홍준, 「현종의 문예취미와 서화컬렉션」, 『조선왕실의 印章』, 국립고궁박물관, 2006.  
李潤相, 「1894-1907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이태진, 『奎章閣小史』, 서울대학교도서관, 1990.
- \_\_\_\_\_,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李哲源, 『王宮史』, 舊皇室財産事務總局, 1954.
- 趙仁秀, 「전통과 권위의 표상: 高宗代의 太祖 御眞과 眞殿」, 『미술사연구』2, 미술사연구회, 2006.
- 진준현, 「肅宗의 書畫趣味」, 『서울大學校博物館年報』7, 서울대 박물관, 1995.
- 최경현, 「19世紀 後半 20世紀 初 上海地域 畫壇과 韓國 畫壇과의 교류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千惠鳳, 「奉謨堂考」, 『國會圖書館報』 제10권 2호, 1973.
- \_\_\_\_\_,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特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황정연, 「19세기 宮中 書畫收藏의 형성과 전개」, 『美術資料』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 \_\_\_\_\_, 「朝鮮時代 書畫收藏 研究」, 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7.

본 논문은 고종 연간 궁중 서화수장이 고종의 정치적 입장과 왕권강화의 일환, 대외적인 정국운영 등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 전개된 양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오늘날 왕실관계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서화자료 중 상당수는 고종 연간에 수집·정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시기의 典籍 및 서화수장에 대한 가치를 밝히는 작업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 연간 서화수장의 흐름을 재위 초기(1863-1873. 10), 재위 중기(1873. 11-1896), 대한제국기(1897-1907)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위중기에 해당하는 19세기 후반이 가장 방대한 컬렉션이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대한제국기 궁중 서화수장으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장품의 관리와 내역에 있어서는 열성어필·어화, 前朝로부터 전래된 서화는 창덕궁 규장각 부속 전각에 보관되었던 반면, 新購入 서화 및 畫譜는 承華樓 → 緝敬堂 → 集玉齋라는 특정한 장소를 거치며 보관된 것도 고종 연간에 등장한 현상이다. 이러한 전각은 모두 국왕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私的인 영역에 속한 곳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곧 18세기 이후 書畫收藏處가 주로 침전영역에 설치되었던 전통과 유사한 맥락이었다고 하겠다.

고종 연간의 서화수장은 왕실의 서화감상이나 수집에 대한 인식이 변천이라는 맥락에서도 이 전시기와 구분된다. 즉 숙종 연간에는 서화감상을 통한 敎化에 치중했고 그 후 憲宗에 의해 순수 감상 목적이 부각되었다면 고종 연간에는 서화에호 차원보다 당대 최신 문화조류의 수용에 치중하여 정책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이 특징이다. 당시에 수집된 국내자료 뿐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서 유입된 방대한 양의 서화작품과 畫譜는 19세기 서화계의 중국풍 유행에 대한 근거가 된다. 앞으로 이들 자료가 국내에 끼친 영향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 Abstract

#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Royal Art Collections during King Gojong's Reign (1863-1907)

**Hwang Jungyon\***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royal court's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高宗, 1863-1907),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its role in the Korean ruler's effort to consolidate his political position and strengthen monarchy, and to how the changing external political landscape influenced it. Even 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paintings and calligraphies preserved in Gyujang-gak (奎章閣) and Jangseo-gak (蔣書閣), the two royal libraries of Joseon that are the largest repositories of the Dynasty's records, were collected and stored during the four decades of Gojong's rule, there have been exceedingly few attempts to assess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collecting activities carried out in this period.

In this study, I distinguish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royal court collection of art into three large periods: the early period (1863-1873) corresponding to the first decade of King Gojong's reign, the middle period (1874-1896), corresponding to the next two decades, and the Great Han Empire period (1897-1907), the decade starting from the year when Gojong declared himself an Emperor of the Great Han Empire (大韓帝國). These three periods reveal their own distinct tendencies. The middle period, in other words, the late 19<sup>th</sup> century, saw the collection

---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row to a vast size, larger than both in the previous and the ensuing period. The collection and curation activitie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refore, consisted of expanding, preserving and organizing the large collection created during the middle period. *Yeolseong-eopil* (列聖御筆), the compilation of calligraphies by successive kings, as well as paintings by kings were stored in the annex library of Gyujang-gak in Changdeok-gung Palace, along with artworks handed down from previous dynasties. Meanwhile, newly-acquired works and painting manuals (hwabo 畵譜) were transited through Seunghwa-ru Pavilion (承華樓), then Jipgyeong-dang Hall (緝敬堂), before they were finally stored in Jibok-je Library (集玉齋), a peculiar process seen for the first time during Gojong's reign. Another detail of interest is that these storage buildings were all located within the king's sleeping quarters (*chimjeon* 寢殿) inside the royal palace. This practice is, in fact, not unrelated to the custom of storing artworks in the king's bedroom quarters, common in the 18<sup>th</sup> century.

Art collection activities during King Gojong's reign differed from similar activities from previous eras also in terms of how art appreciation or collection was perceived. During King Sukjong's (肅宗) time, for instance, art was considered a medium of edification. Later, during the reign of Heonjong (憲宗), art was perceived as something to be appreciated as such and in itself. Under King Gojong, art was promoted at a policy level, but not so much for its own sake as out of a desire to keep up with the latest cultural trends of the time. Both Korean artworks and artworks brought in from China and Japan in vast quantities, making up the royal collection, manifest a strong influence of the prevailing 19<sup>th</sup>-century Chinese trends. Investigating how these foreign works imported under King Gojong influenced Korean art would be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topic for future research.